

---

第53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2年2月28日(金) 午前10時

場所 文化教育委員會

---

議事日程

1. '92業務計劃報告(서울特別市教育廳)
  2.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社會教育協議會設置條例等一部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立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7. '92業務計劃報告(서울市立大學校,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教育院)
- 

審査된案件

o 報告事項 ... 2面

1. '92業務計劃報告(서울特別市教育廳) ... 3面
2.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 18面
3.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 20面
4. 서울特別市社會教育協議會設置條例等一部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 21面
5. 서울特別市立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 22面

6.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 27面

7. '92業務計劃報告(서울市立大學校,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教育院) ... 32面

---

(10時 23分 開議)

○委員長代理 金相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文化教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

o 報告事項

○委員長代理 金相復; 먼저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林性洛; 議案擔當官室 林性洛입니다. 報告를 올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提出되어 同年 12월 4일 當 委員會에 回附된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立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과 1991년 12월 6일 서울特別市教育監으로부터 提出되어 같은 날짜에 當 委員會에 回附된 서울特別市社會教育協議會設置條例等一部改正條例案 等 總 5件 中 1991년 12月 23日 定期會 第5次 文化教育委員會에서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 그리고 서울特別市社會教育協議會設置條例等一部改正條例案 등 3件은 議事日程 第6,7,8項으로 一括上程되어 提案者인 서울特別市教育監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은 후 현재 계류중이며, 나머지 서울特別市立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諸證明手數料徵

收條例中改正條例案은 당시 上程되지 않아 오늘 上程하게 되겠습니다.

1992년 1월 14일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에서 學校用地 확보를 위한 建議文이 提出되었습니다. 內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1년까지 우리의 教育環境을 선진국수준으로 하려면 약 400個의 學校用地가 필요하나 教育費財政으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學校用地 확보를 위해서는 서울市側의 적극적인 배려와 關聯條例 및 規定의 改정이 先行되어야 하므로 市議員님 여러분들이 教育現實을 감안하셔서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요망하는 內容으로, 자세한 內容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2월 20일 서울特別市長과 教育監으로부터 '91行政事業監查結果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에 대한 處理結果報告書가 當 委員會에 回附되어 왔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

## 1. '92業務計劃報告(서울特別市教育廳)

(10時 25分)

○委員長代理 金相復;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教育廳 1992年度 業務計劃報告를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편의상 양해를 받았고 해서 副教育監 나오셔서 인사와 所管業務에 대한 報告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副教育監 朴炳墉; 존경하는 文化教育委員님을 모신 자리에서 92年度 저희 教育廳의 主要業務計劃을 報告드리고 圖書館設置改正條例案 등 5件的 改正案을 上程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地方自治가 실시된 元年으로 教育自治의 定着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여러 委員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首都教育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희 教育廳에서는 조화로운 人間教育, 教育力 向上, 科學·實業教育의 內實化, 教育與件의 改善, 教育自治의 定着에 주안점을 두고 21세기의 主役이 될 民主市民 育成을 위한 全人教育施策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오늘 本 委員會에 上程된 改正條例案은 上位法の 改正과 職制의 改編으로 인해 부득이 關聯條文을 整備하고자 하는 內容으로 學校環境 및 衛生改善을 위한 社會教育協議會設置條例案, 圖書館의 社會教育機能의 提高를 위한 圖書館設置및使用料徵收條例 및 公務員들의 士氣振作을 위한 表彰條例案 등 5件의 改正案입니다.

저희 教育廳의 今年度 業務計劃報告와 改正條例案의 審議를 통해 우리 首都教育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委員長과 여러 委員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2年度 主要業務計劃은 本會議에서 상세하게 報告드렸기에 유인물로 대신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副教育監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會議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教育廳 業務報告에 대해 質疑하실 委員 있으시면 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副教育監께서 말씀하셨듯이 本會議席上의 報告와 우리 常任委員會에서의 報告는 동일합니다. 시간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만 특별한 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분 계시면 즉흥적으로 副教育監께서 答辯하

는 그러한 順序를 갖겠습니다. 業務報告에 대해서 質疑  
좀.....

○孫允準 委員; 孫允準 委員입니다. 主要業務計劃을 다는 못  
하더라도 대충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과 똑같다면  
똑같다는 事由라도 밝히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지금 현재 孫允準 委員님께서 말씀하시  
기를 業務報告는 本會議席上에서의 報告와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한 報告와 質疑가 없으면 넘어가자는 그런 뜻이죠?

○孫允準 委員; 네, 넘어가는데 지금 오신 委員님들도 모르시  
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기 常任委員會에서 主要業務計劃들이  
같다는 것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委員長代理 金相復;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會議를 진  
행하겠습니다. 副教育監 나오셔서 業務報告에 대해서 유인물  
로 대신하되 主要案件에 대해서 口頭로 概略적인 얘기만 說  
明式으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副教育監 朴炳墉; 대충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業務報告의 順序는 一般現況, 서울교육의 指標, 서울교  
육의 課題, 그리고 92年度 主要業務計劃입니다. 이 중에서 今  
年度 主要業務計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教育廳 '92主要業務計劃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教育廳 業務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감사합니다. 順序上은 저희 委員會에서

質疑하실 順序가 되겠습니다만 質疑에 앞서 저희 委員會의 運營事項을 報告드리겠습니다.

저희 文化教育委員會는 상당히 討議를 많이 하는 그런 委員會로 현재 浮上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92年度 業務報告 이후에 우리는 특별히 小委員會를 構成해서 分野別로 深度있게 論하는 것이 더 效果的이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意見이 集中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案件이 아니면 質疑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報告한 가운데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간단하게 質疑를 해 주시죠, 어차피 이 問題는 새롭게 다룰 것이니까.

네, 孫馥 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孫馥 委員; 孫馥 委員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한 것을 質疑하겠습니다.

業務報告計劃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야지 地域에 가서 弘報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서 質疑를 드리는 바입니다. 얼마 전에 言論에서도 指摘이 됐습니다만 校服一括 購入에 따른 學校長에게 사례비를 징수했다는 데 거기에 대한 現況을 파악하셨는지, 또 그 대책이 어떠신지 그것도 간단하게 說明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國民學校, 오늘 新聞인가 어저께 言論에서 들었는데 國民學校 藝體能 專擔教師를 名 學校別로 配置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方法으로 실시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說明을 해 주시고, 또 教育環境改善에 있어서 老朽 책걸상이 100% 交替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地域의 驛三國民學校 같은 데는 아직 옛날 基準値에 미달되는 老朽 책걸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나오셔서 答辯해 주세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副教育監 朴炳墉; 答辯드리겠습니다. 孫馥 委員님께서 얼마 전에 全國敎職員勞動組合에서 江西教育廳官內 일부 學校에서 校服을 一括 購入하고 거기에 따른 業者로부터 金品을 수수했다, 또 選定過程에서 일부 敎師나 혹은 學校管理者나 校長이 獨善的으로 校服을 購入했다 하는 그런 內容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調査를 했습니다. 調査한 結果 5개 中學校에서, 그 사람들이 지적한 5개 中學校에 대해서 一括해서 調査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購買過程에서 校服關係는 한 學校도 校長이 獨善的으로 한 데는 없습니다. 전부가 學父母, 學生, 敎員으로 構成된 校服關係者의 選定委員會를 構成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샘플을 놓고 그래서 校服을 購入을 했습니다. 그래서 獨善的으로 購入한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業者選定도 한 學校에서는 公開入札을 했고 그 외의 學校에서는, 왜냐하면 어떤 特定모델을 決定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 業者가 選定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교장이 한 것이 아니라 주로 학부모대표와 학생대표가 모델을 결정함으로써 자연히 업자가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販賣價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는데 거기에서는 차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學校에 따라서는 冬服과 夏服을 하는 學校가 있고 또 어느 學校에는 女學校나 이런 데는 또 오바를 같이 주문하는 學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를 주문한 學校와 오바를 주문하지 않는 學校와의 差는 자연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學校와 어느 學校의 差가

얼마가 있다, 2만원이나 1만 얼마 차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着用은 거의가 새로 入學하는 新入生부터 着用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金品關係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調査한 결과 現札을 金品으로 받은 學校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學校에 따라서 敎職員食堂은 자기네들이 寄贈한다든가 혹은 學生들의 放送施設 혹은 VTR 같은 것을 해준 學校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사람들은 現金으로 計算해 보니까 얼마 더라 하는 것을 돈으로 받았다 이렇게 全敎組側에서 발표한 것을 新聞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學校가 現札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委員님들에게 제가 자신있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孫馥 委員; 記事內容에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副敎育監 朴炳墉; 네, 記事는 제가 資料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全敎組가 준 그 內容은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全敎組側에서는 物品을 돈으로 計算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孫馥 委員; 國民들이 보았을 때는 敎育者들이 그렇게 誤導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회복을 할 것입니까?

○副敎育監 朴炳墉; 그런데 委員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발표된 것은 다시 정정을 要求해도 정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孫馥 委員; 앞으로도 그렇지만 그런 것이 참 아쉽습니다.

○副敎育監 朴炳墉;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체의 寄贈

을 해 준다 하더라도 받지 않도록 저희가 一括해서 또 指示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國民學校 藝體能教師 專擔制配置 問題를 質問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國民學校 高學年 先生님이 適當 받고 있는 時數가 32時間에서 33時間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대적으로 中學校나 高等學校의 先生님들은 18時間 내지 20時間이 됩니다. 32時間이니까 差가 너무 많다 이것이죠. 그러니 너무 과중하니 이 業務를 좀 덜어달라 하는 것이 國民學校 先生님들의 意見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各 學校에 敎員을 配置해 가지고 4·5·6 學年 敎師들이 받고 있는 業務中에서 一部를 增置된 先生님들이 맡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敎育部에서 거기에 따른 TO를 보내주고 이번 敎育公務員法施行令改正案은 國務會議의 통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國民學校 高學年の 先生님들의 授業時數가 주는데, 가능하면 藝體能敎科를 그 방면에 소질과 또 敎育大學에서 副專攻으로 한 분들을 그런 쪽으로 配置를 해서 高學年들의 授業도 內容을 충실히 하고 그러면서 先生님들의 負擔도 줄여주는 이런 計劃을 세우고, 종래 增置된 敎師는 産後 혹은 敎育 이런 것으로 先生님들이 못 나왔을 때 補缺授業쪽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講師를 配置해 가지고 講師로 쓰고 增置된 先生님들은 授業을 직접 擔當하도록 이렇게 지금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孫馥 委員; 專擔敎師는 그럼 一般敎師로서 보충할 것입니까, 아니면 特別한 實技敎師나 이런 計劃도 있습니까?

○副敎育監 朴炳墉; 가급적이면 실기쪽에 가면 저희도 좋고

그런데, 전 교과를 맡고 있다보니까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국민학교에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생님의 능력에 따라서 부득이 예체능 못 맡는 선생님은 다른 국어나 산수를 맡는다든가 해서라도 담임선생님의 수업을 덜어주는, 그것은 학교가 교장선생님과 지원해서 본인이 무슨 교과를 맡겠다 하면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것은 하도록 지금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책결상 가는데 저희가 재작년에 전부를 다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하여튼 체위에 안 맞는 것 모든 것을 전부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것은 학교가 희망하는 것만 검토를 해 가지고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책결상은 한 달 이내면 변화가 옵니다. 그 나이에 기구는 정말 쇠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닳습니다. 나무책결상이기 때문에 애들이 장난하고 또 움직이고 하다보면 노후됩니다. 그래서 매년 교체를 해 주고, 금년에도 또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각 교육청별로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은 새로 조사를 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죠.

○副教育監 朴炳墉; 그리고 역삼국민학교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장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본청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孫馥 委員;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副教育監 朴炳墉; 네, 그렇게 해서 전량 대체되도록 하겠습니다.

○孫馥 委員; 네, 고맙습니다.

○副教育監 朴炳墉; 감사합니다. 저희 일정이 오늘 상당히 있습니다. 11시에 또 우리 시립학교에 질의·응답을 받아야 하

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이것으로써 질문을 종결할까 하는데…….

○孫允準 委員;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3쪽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저는 학교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독서실은 운영에 있어서 그 학교학생들의 학교수업의 종료 후에는 귀가해서 각자 다음 학교 갈 때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대다수 학생들이 주변의 독서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주변의 독서실 나가는 것을 크게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보낼 수는 없고 마지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독서실환경 자체가 잘 되어 있으면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보내는데, 강북쪽 같은 데는 사실 안 보낼 수도 없고 부모들이 또 그렇다고 집에 놀릴수도 없고 이러니까 주변 독서실을 보내는데, 오히려 주변 독서실을 보내는 것보다 학교내에 학교수업의 종료 후에 학교내에 학교장 재량하에 독서실을 한번 운영해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건의해 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起鍾 委員; 현행 학군제도의 개선을 건의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강서교육청 산하에 중고등학교를 볼 것 같으면 중고등학교가 8학군에 버금가게 지금 굉장히 학교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부천이라든가 김포, 또 마포쪽에서도 주민등록을 학교 근처로 전부 옮겨 놓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직접 확인을 하는데 대개의 경우 친인척 집으로 옮겨 놓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용이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근처에, 바로 학교 앞에 두고 10여년 이상을 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버스를 두세 번씩 타고, 심지어는 버스노선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에 배정이 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배정기준을 다시 새롭게 개선을 해서 그 학교 인근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10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을 학교 근처에 배정을 하고, 타 지역에서 와서 몇 개월 됐다든가 1년 미만이었다든가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먼 거리로 배정을 하는 그러한 배정기준이 되어 주었으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번 우리 행정감사나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10여년 이상 된 사유지에 학교부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학교를 설립할 계획조차도 전혀 없는데 학교부지로 계속 유지함으로써 인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은 물론이려니와 저희 관내에 염창동 소재에 볼 것 같으면 그 학교부지에 고물이라든가 폐품 이런 것을 하도 많이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 주거환경에 막대하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도 원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10년 이상 된 학교부지가 앞으로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2·3년 내에 전혀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된 데 대해서는 학교부지를 해제를 해서 우선 사유재산도 보호하고 주위의 환경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교육청의 앞으로 개선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거기의 답변에 앞서서 劉起鍾 委員님

두 번째 질문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부지 활성화 및 합리화의 계획을 지금 짜고 있고 또 서울시장하고 지금 현재 상담, 면담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의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趙貞順 부의장님께서도 시장님을 만나보였고 먼저 얘기했던 제가 사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 내지 무단전입에 대한 근원적인 치유방법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教育監 朴炳墉; 答辯드리겠습니다. 江西地區에 轉入 學生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고 있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 서울시내 隣近 衛星都市에서 서울시내 學校에 假轉入해 가지고 다니는 學生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京畿道가 서울시로 編入되면서 兩道 教育監에 의해서 그 당시에 京畿道 學群이, 그 地域이 서울로 編入은 되었지만 그 隣近에 있는 學生들이 그 地域의 學校에 다니던 學生들은 계속해서 다닐 수 있도록 措置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地域은 지금 현재 자기 地域의 學校에 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地方自治時代이고 모든 財源은 地方自治團體에서 調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京畿道教育廳에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國家豫算 가지고 다 해 왔지만 京畿道에 있던 서울에 있던 學生들 중에 어느 정도는 서로간에 엄격하게 단속을 못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 京畿道 學生은 서울시에 入學할 수 없으니 京畿道는 京畿道대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 學生들을 수용하도록 해 주시오, 그리고 저희는 教育廳과 學校에 他 地域學生에 대해서 全員 돌려보내도록 教育的인 조치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록 假住居를 해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京畿道에 집이 있고 거기에서 통학하는 學生들은 다 돌려보내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劉起鍾 委員; 그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江西地域은 지금 그런 입장이고, 他 地域에서도 볼 것 같으면 한 10餘年 이상을 산 學生이 바로 측근에 있는 데 배정이 안 되고, 그런 學生들은 전혀 다른 洞에 한 두세 번 통학을 해야 가는 데 배정이 되고 1年이라든가 2年 가까이 얼마 살지 않은 學生들이 주위의 隣近學校에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데, 그 기준을 앞으로는 컴퓨터에 입력할 때도 기준을 다시 바꾸어 가지고 居住期間을 산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副教育監 朴炳墉;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居住期間을 適用하고 있는 데가 8學群 중에 江南, 瑞草地域은 居住期間을 適用해 가지고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部分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事項입니다, 서울시내를 전부 居住期間을 適用한다는 것은.

○劉起鍾 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

○副教育監 朴炳墉; 결과적으로 보면 居住期間이 適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居住期間을 봐 가지고 隣近學校에다 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劉起鍾 委員; 그러니까 8學群 중에서 瑞草 그쪽 말고 他 8學群地域에서, 예를 들어서 松坡地域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그 隣近學校에 居住를 십몇년씩 한 사람들이 전혀 다른 地域으로 배정이 되고 거기에 居住한 지 1년 정도도 안 된 學生들이 그 측근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學父母들이나 學生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을 컴퓨터에 입력할

때 그런 基準을, 제가 아까 學務局長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고려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副教育監 朴炳墉; 그 部分은 技術的인 문제가 있으니가 實務檢討를 해 가지고 별도로 本 委員會에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劉起鍾 委員님의 質疑를 보다 구체적으로 書面으로 할 수 있으면 書面으로 해 주시면 전부다 알기가 좋겠습니다. 앞으로 向後方法 그것도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質疑와 答辯을 終結하고 싶은데 委員 여러분께서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으시죠? 그러면.....

○李鍾學 委員;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네, 李鍾學 委員님.

○李鍾學 委員; 李鍾學 委員입니다. 지금 副教育監님께서 京畿道 居住者 學生들에 대해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91年度까지는 그냥 다녔는데 지금 그 조치가 發效 중입니까? 제가 일기로는 아직 그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고 京畿道하고도 합의를 보지 않은 事項인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다니고 있는 學生을 92年度에 京畿道로 내쫓는 것이냐, 지금 作業중이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물론 지금 아마 각 教育廳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 地域에서 京畿道 附近의 學父母님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江西뿐만이 아니라 松坡 이 위쪽으로도 많이 잠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計劃이 樹立이 되어 가지고 進行 중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것을 정확히 解明 좀 해 주십시오.

○副教育監 朴炳墉; 상당히 민감한 말씀인데 지금 저희가 각 教育廳別로 實態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實態가 파악이 되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斷案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李鍾學 委員; 아직 計劃 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副教育監 朴炳墉; 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은 計劃 中에 있습니다.

○李鍾學 委員; 네,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學力考査의 難易도가 매우 쉬워짐으로 인해서 學院이 많이 亂立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한발 더 맞추어 가지고 學生들의 學院受講을 許容할 방침이다라고 이미 新聞紙上에 大書特筆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學校教育이 흔들릴 정도로 위험하지 않은가, 많은 學院이 亂立을 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또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물론 教育部에서 試驗問題를 출제하겠지만 93年度에 또 그렇게 한다면 몇 년 이내에 아마 서울시내에는 學院天國이 될 것입니다. 이미 92年度 지금쯤에는 이것에 대한 우리 서울교육청도 計劃이 樹立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高等學校 在學生數의 學院受講 %를 보면 教育廳이 발표하는 것하고 실제 受講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本委員은 이 점에 굉장히 우려를 表明하고 있습니다. 물론 92年度 業務計劃이기 때문에 學院이 亂立되는 이러한 현상을 막는 조치라든가 이것에 대한 計劃을 잘 樹立하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質疑를 終結할까 하는데.....

또 質疑하실 委員님이, 趙貞順 委員님.

○趙貞順 委員; 趙貞順 委員입니다. 우리 教育廳 教育監님을 위시해서 副教育監님, 또 關係公務員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報告事項에 대해서는 다 잘 들었고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民願에 대한 回信에 대해서 제가 質疑를 할까 합니다.

城東區 廣壯洞 554番地에 中學校를 設立하려고 그러다가 設立이 안 된 것에 대해 教育廳으로부터 民願에 대한 回信이 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教育廳에서는 城東區 廣壯洞 554番地에 92年度 3月 開校 豫定으로 光南중학교 設立을 推進하였으나 教育財政 形便上 93年度 3月 開校 豫定으로 設立計劃을 變更하여 推進하고 있으니 諒知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民願에 대한 回信을 보냈는데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92年度 3월에 新入生을 받겠다고, 開校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여기 回信을 보면 93年度 3월에 開校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土地買入도 지금 안 되어 있고 豫算確保도 안 되어 있는 속에서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教育監 朴炳壙; 趙委員님께서 廣壯洞의 中學校 設立問題 말씀이 계셨습니다. 분명하게 저희가 93년 3월 開校할 豫定으로 推進하고 있다고, 과거에 91年度엔가 民願에 대한 回信을 한 적이 있습니다. 委員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의 저희의 學校敷地買入費 혹은 建築費의 豫算을 檢討해 보면 93년 3월에는 學校를 設立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回信을 했습니다.

그러나 每年 公務員 특히 敎員의 人件費 上昇率과 豫算의 增額을 비교해 볼 때 人件費는 20% 이상이 自然增加까지 포함되다 보니 20% 이상 오른데다가 全體豫算은 불과 6%밖에

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學校를 設立할 수 있는 豫算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民願人들에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敷地는 市有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에다가 우선 사용을 하게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年拂로 갚겠다, 그러니 우선 그 地域의 學生收容을 위해서는 學校設立이 급박하니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다음에 年拂로 갚도록 하겠으니 그 점을 양해해 달라 해서 公文을 보내고 實務會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委員님께서도 市長님과 副市長님께 협조요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 주시면 이 部分은 되리라고 봅니다. 되면 금년도 工事を 착공하면 내년도 開校에는 무리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님의 特別한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趙貞順 委員;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무책임한 答辯으로 인해서 地域에 있는 區議員이나 市議員이나 國會議員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民願에 대한 答辯書를 보낼 적에는 좀 정확하게 보내주셨으면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副教育監 朴炳墉;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이제 質問을 終結합니다. 그래서 오늘 開陳되고 있는 意見들은 우리 委員會는 特殊性을 가졌기 때문에 分野別로 나누어 가지고 專門性을 요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써 質疑와 答辯을 終結하겠습니다.

---

2.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1時 7分)

○委員長代理 金相復; 다음은 議事日程 제2항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지난 제9회 定期會 제5차 當 委員會에 上程되어 提案者側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質疑 答辯過程을 거쳐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입니다. 이 件에 대해서 혹시 意見이 계신 분은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 件에 대해서는 전번에 討議가 끝났기 때문에 이상으로써 質疑와 答辯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異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趙貞順 委員; 죄송합니다. 趙貞順 委員입니다.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施行한다」를 「이 조례는 公布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修正動議하고 나머지 部分은 執行部에서 提出한 原案과 같이 통과하고자 提案합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條例 附則에 施行日字만 변경하고 原案대로 통과하자는 그런 修正動議案이 시죠?

○趙貞順 委員; 네, 3페이지에 있습니다.

○孫允準 委員; 動議案에 찬성합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趙貞順 委員으로부터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 附則 「이 條例는 1992년 1월 1

일부터 施行한다」를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部分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提出한 원안대로 하자는 修正動議案이 發議되었습니다. 이 動議에 再請하십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趙貞順 委員이 발의한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修正動議는 議題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趙貞順 委員이 修正動議하신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 附則 「이 條例는 1992년 1월 1일부터 施行한다」를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라는 修正案대로 하고, 나머지 部分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

3.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1時 11分)

○委員長代理 金相復; 다음은 議事日程 제3항 서울特別市教

育學藝에關한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이 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은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와 答辯은 一問一答式으로 할 수 있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質疑 안 계시죠? 이상으로 質疑와 答辯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關한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

4. 서울特別市社會教育協議會設置條例等一部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1時 12分)

○委員長代理 金相復; 다음은 議事日程 제4항 서울特別市社會教育協議會設置條例等一部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이 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 있으면 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質疑와 答辯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社會教育協議會設置條例等一部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죠?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

5. 서울特別市立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1時 13分)

○委員長代理 金相復; 議事日程 제5항 서울特別市立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社會教育體育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教育體育局長 鄭鶴謨; 議案 제5항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提案經緯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改正事由는 市立圖書館의 使用料에 대해서 圖書館振興法 제28조, 同法施行令 제30조 및 同法施行令 附則 제7조에 의거 改正하고자 하는 것이 주 改正事由가 되겠습니다.

主要骨子は 종래 市立圖書館에서 入館料를 100원씩 받던 것을 91년 12월까지만 받고 92년 1월부터는 徵收하지 않기로,

위에서 설명드린 圖書館振興法이 지난해 4월에 改正하는 과정에서 法에서 규정하는 事項이기 때문에 무료로 改正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資料複寫料를 A3, B4의 複寫는 매당 20원에서 3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이 主要骨子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改正根據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쪽입니다. 다음 委員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新舊對照表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圖書館使用料가 法에 근거해 가지고 使用徵收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用語를 정리하는 내용이고, 제3조는 종래 使用料를 徵收할 경우에는 教育監의 優待券制度를 施行하던 그 規定을 全文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별표 1. 一般複寫機에 의한 複寫料를 종래는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3서부터 B5까지가 동일하게 각 20원씩 徵收하던 것을, 우측입니다. 우선 A3하고 B4는 30원으로 규격이 좀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규격이 작은 나머지 2개 유형은 종래와 같이 20원으로 徵收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參考적으로 다음 쪽에 말씀드리면 우선 타 시·도와 各級 圖書館에서 현재 徵收하고 있는, 저희들이 資料를 수집을 해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 南山圖書館에서 나름대로 용지라든가 인쇄소모폼비, 인건비 등을 가지고 환산해 보았더니 역시 他 시·도에서 徵收하는 수준으로 저희들도 引上 徵收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參考表를 붙여드렸고,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引上했을 경우에는 年間 稅收 增大가 1,5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提案說明 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鄭永國;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대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립도서관사용료중 입관료를 무료로 하는 것과 자료복사료중 A3와 B4의 복사료를 20원에서 3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입관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수 없고, 규격이 큰 용지의 복사료는 원가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근본취지에는 납득이 가나 일시에 50% 인상하는 인상선이 타당한지가 심사대상인데 별첨한 분석표, 사유를 분석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석표는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만 부칙중에서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장에 나오는 인상사유분석표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복사료가 책정된 것은 87년 1월 1일 20원으로 정해졌었습니다. 그랬는데 왜 지금에 와서 고쳐져야 되느냐 하면 기간문제도 있고, 두 번째 근거를 보면 A3는 남산도서관 실비 계산해 볼 때 40원까지 인상할 수가 있고, B4는 35원 10전까지 인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3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낸 것입니다.

다음에 다른 타기관 복사료 비교를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A3가 25원, B4도 25원이고 국회도서관은 30원이고, 부산시립도서관은 40원이고, 대구시립도서관은 30원이고, 인천시립

도서관은 20원이고, 대전시립도서관은 3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교육청에서 낸 30원보다 낮게 된 25원이나 20원으로 책정된 것은 이것도 책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고, 다른 데에는 다 30원에서 40원으로 이미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0원을 3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 있으시면 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이 件에 대해서?

○金熙健 委員; 이것은 質疑內容이 아니고, 우리 委員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사실은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다니는 애들 參考書 살 돈이 없어 가지고 가서 복사하는 돈입니다. 이 돈이 20원, 30원 하는 돈이 이것을 좀 한 1년이나 2년쯤 있다가 引上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意見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이상으로 質疑하실 분이 안 계시면 質疑와 答辯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件에 대해서. 그러면 金熙健 委員님의 설명에 대해서 議題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再請이 있어야 됩니다. 再請하십니까? 再請을 해야 議題로 성립되니까, 再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金熙健 委員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가 안 되었으니까 이상으로 質疑와 答辯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提出한 서울特別市立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張精一 委員; 異議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張精一 委員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精一 委員; 張精一 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立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附則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施行한다」 를 「이 조례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執行部에서 提出한 原案과 같이 修正動議합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張精一 委員으로부터 서울特別市立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附則 「이 조례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하자는 修正動議의 發議가 되었습니다. 이 動議에 再請하시죠?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張精一委員님이 發議한 서울特別市立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修正動議는 議題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意見 없으시죠? 議題로 성립된 데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張精一委員님이 修正動議하신 서울特別市立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附則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를 「이 조례는 公布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6.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1時 25分)

○委員長代理 金相復; 다음은 議事日程 제6항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서울特別市教育監을 代理해서 管理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정충희; 管理局長입니다.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改正事由는 諸證明手數料徵收에 관한조례는 77년 4월 9일과 84년 6월 15일 改正된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手數料의 種類와 金額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調整함으로써 효율적인 教育行政의 수행과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첫째, 身元 등에 관한 證明手數料는 1건당 200원을 400원으로 引上 調整하고, 두 번째, 法人 및 학원의 認可, 許可, 登錄, 申告에 관한 手數料를 新設하여 1건당 600원으로 하고, 세 번째 입찰참가 및 공유재산매수 등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여 1건당 600원으

로 하는 內容입니다. 위 세 各項은 서울특별시와 各 區廳의 手數料徵收條例를 참고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各급학교의 諸證明手數料는 1건당 200원을 300원, 外國文은 250원을 400원으로 引上調整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內容은 別표를 參考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原案대로 審議 議決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專門委員 鄭永國;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主要骨子와 檢討意見을 중심으로 報告드리고 나머지는 書面報告로 代置하고자 합니다.

主要骨子を 보면 摘要해서 말씀드리면 400원으로 引上하는 案 한가지 하고, 600원으로 引上하는 案하고 두 가지로 摘要이 됩니다.

檢討意見을 말씀드리면 일견 보기에 뒤에서 比較표가 나오는데 서울시의 같은 종류의 手數料에 비하여 건당 50원씩 높게 된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內容을 볼 때 서울시의 手數料는 90년 4월에 調整, 決定된 것이므로 物價上昇率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는 경우 다음 표와 같이 400원, 600원보다도 더 높게 策定해도 되는 것을 조금씩 낮게 策定한 것같이 나타나므로 原案대로 可決해도 큰 問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뒤의 분석比較표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教育廳이 改正하고자 하는 400원, 600원 案이고 같은 종류의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350원, 550원씩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50원씩 더 높은 것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90년 4월에 調整된 것인데 90년 4월에서 이 案을 提出할 때까지 91년 11월까지 都賣物價指數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표가 분석이 됩니다. 뒤의 明細表는 統計廳에서 發行한 1991년 11월 韓國統計月報에서 資料를 발췌해 가지고 분석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手數料 上昇率이 서울시청이 策定한 때서부터 이 안을 提出할 때까지, 91년 11월까지의 手數料 上昇率이 28.16%라 98월보다는 조금더 낮게 策定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 600원짜리의 경우에도 이것도 역시 手數料 上昇率에 비하면 28.16%로서 154원을 더 서울시청보다 높게 책정해도 되는데 50원만 더 높게 策定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상승이라고 보이는 부분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 있으시면 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趙貞順 委員님.....

○趙貞順 委員; 趙貞順 委員입니다. 原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그러면 質疑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質疑와 答辯을 일단 終結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提出한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趙貞順委員님이 얘기한 대로 異議가 없는 것

으로 알고 異議 없으므로 이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

(뒤에 실음)

.....

○委員長代理 金相復; 教育廳 副教育監님, 關係官 여러분, 정  
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教育廳 職員 여러분께서는 이제 나  
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續開를 해야 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5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33分 會議中止)

(11時 45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金相復;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條例整備特別委員會에서 그 동안 非會期 중에 市民  
에게 不便을 초래하는 여러 조례를 審議한 結果 우리 委員會  
所管部署에 대한 조례인 서울特別市文化藝術振興基金造成運  
用條例와 서울市立大學校設置條例 2건에 대하여 改正하는 것  
이 좋겠다는 것으로 決定하여 우리 委員會에 意見을 물어왔  
기에, 이미 배부해드린 內容과 같이 여러 委員님들의 意見을  
듣고자 하니 檢討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와 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鄭永國; 방금 말씀하신 條例特委에서 넘어온 意見

聽取에 관한 2건을 一括해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文化藝術振興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提案經緯는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 檢討對象條例 238건 중 에서 文化教育委員會소관 18건을 一般行政分野小委員會에서 檢討한 끝에 본 條例의 改正이 필요한 것으로 議決한 후 全體會議에 報告하였고, 지난 2월 21일 午後 2時에 開催된 全體會議에서 小委員會案대로 議決하고 所管 우리 委員會의 意見을 듣기 위하여 回附된 案件입니다.

提案理由는 大統領令인 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 제9 조의 제1항 및 제3항의 規定에서 規定한 用語와 一致시키기 위하여 改正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主要骨子は 옛날에 되어 있던 文化擔當官이라는 用語를 文化觀光局 文化課長으로 改正하는 것입니다.

檢討意見은 제8조 중 文化擔當官을 文化觀光局 文化課長으로 改正함이 妥當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立大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提案經緯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提案理由는 서울특별 시장을 法定用語가 아닌 시장으로 결정하였고, 또한 종합대학교인 시립대학교를 대학이라고 규정한 것을 法定用語와 一致시키기 위하여 改正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主要骨子は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市長이라 한다)"라고 고치는 것이고, 제6조에 大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大學校로 고치는 것이고, 제9조에서는 아까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規定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市長이라고 고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는 것이 骨子인데, 檢討意

見을 말씀드리면 特委에서 넘어온 안대로 改正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檢討되었습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다음은 回附된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意見聽取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孫馥 委員님 意見 없으십니까?

○孫馥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그러면 이 건의 意見은 다른 意見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條例整備特別委員會의 改正案대로 별도 意見 없으므로 우리는 별도 意見 없음이라고 回示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委員會에서 審議聽取한 결과 별도의 다른 意見이 없다고 이렇게 回示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네, 감사합니다.

---

## 7. '92業務計劃報告(서울市立大學校·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敎育院)

(11時 52分)

○委員長代理 金相復; 議事日程 第7項 92年度 業務計劃報告를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議事日程 第7項 中 서울市立大學校件입니다. 오늘 서울市立大學校件에 대해서는 먼저 業務報告를 듣는 順序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저희 委員會를 항상 생각하여 주신 總長님께서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상 總長님의 인사를 듣고 業務報告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님! 異議

없으시죠? 일부러 바쁘신데 나오셨으니까 總長님 인사 좀 해주시죠.

○서울市立大學校 總長 申弘;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들을 모시고 금년 처음 開會된 文化敎育委員會에서 제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바쁘신데 또 昨年에도 저희 大學을 각별히 보살펴 주셔서 大過없이 저희들은 내일로써 91學年度를 끝마치고 3월 2일부터 새 학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채찍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대학이 경쟁시대로 들어갔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최근에 각종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대학을 살리자, 대학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일선에서 대학교육을 맡아 하고 있는 저희들이 불민해서 그런 사회적 비판이나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은 역시 여건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더욱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최근에 全國에 國立大學, 私立大學에 工大擴充을 위해서 政府에서 주선을 해서 大財閥들이 20억 원, 30억 원, 60억 원 이런 식으로 支援資金을 모금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受惠를 좀 해 보기 위해서 財閥에도 얘기를 해 보고 또 靑瓦臺에서 주관을 하신다고 해서 靑瓦臺에도 부탁을 드려 봤습니다만, 서울市立大學校件은 시에서 運營하는 것이고 시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豫算이 많으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도와줄 여력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國立大學은 왜 주선을 해 주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國立大學은 去年에 施設擴張豫算을 불과 50억원밖에 늘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政府豫算에 능력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中央政府에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인데, 市立大學까지는 아직은 배려를 못했다, 시에 가서 잘 얘기를 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를 보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委員님들이 만족하시도록 學校運營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議會에 너무도 많은 것을 기대고 싶기 때문에 이런 고충을 바쁘신 委員 여러 분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있는 힘을 다해서 委員長님 또 委員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學校運營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昨年度에 學生들의 勉學雰圍氣를 刷新하기 위해서 國公立大學中에서는 가장 먼저는 아닙니다만 아직도 學則改正을 하지 않은 大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모두 合意를 해 주셔 가지고 勉學雰圍氣를 一新하기 위한 學則改正도 일찍이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가 바뀌어도 새해인사도 변변이 드리지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또 委員님들이 今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신 가운데 議政活動을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委員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감사합니다. 市立大學校 總長님께서 직접 나와서 인사를 해 주니까 저희 委員會로서는 뿌듯한 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또 말씀 가운데 財政問題가 나올

때마다 저희들은 가슴이 아픕니다.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에 바탕을 두고 研究檢討하는 그런 基調를 한번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順序에 의해서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企劃室長 나오셔서 所管業務에 대하여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室長 安斗順; 서울시立大學校 企劃室長 安斗順입니다. 92年度 業務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92年度 서울시立大學校 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것으로 業務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報告에 대해 質疑하실 委員님 있으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金熙健 委員님.

○金熙健 委員; 報告內容은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고, 요새 2월 3월 지내시면서 新入生 關聯해 가지고 業務가 상당히 많으셨을 것입니다. 企劃室長님 저하고 一問一答해 주실까요?

이번에 登錄金 몇 %나 올랐습니까?

○企劃室長 安斗順; 저희들이 8.5%를 올렸습니다.

○金熙健 委員; 지금 平均 引上率이 얼마나 됩니까?

○企劃室長 安斗順; 全國的으로 보면 12~15%인데 저희들은 平均보다는 더 낮은 水準으로 올렸습니다.

○金熙健 委員; 登錄金 引上에 따른 協議過程이 있으셨을 텐데 그 過程에 대해서 잠깐 說明 좀 해 주십시오.

○企劃室長 安斗順; 그 問題는, 協議는 언제든지 역시 學生들과 저희 事務局 傘下 職員들과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勞使協定처럼 指示를 하는데 저희 學校는 첫째는 學生들이 우리 學校의 特殊한 사정 즉, 財政自立度가 매우 낮다는 것하고 또 學生數가 적음으로써 規模經濟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固定費用이 많이 든다는 이런 점을 學生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또 저희 學校에서도 작년에 비교적 많은 率이 올랐기 때문에 금년에는 全國平均 추세에 따라가지 않고 物價安定을 重要施策으로 삼고 있는 政府의 방침에도 호응하기 위해서 낮은 率을 提示를 했고 그래서 學生들이 이번에는 전혀 저항 없이 쉽게 妥結이 되었습니다.

○金熙健 委員; 내년부터는 引上率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室長 安斗順; 잘 알겠습니다.

○金熙健 委員; 두 번째로 지금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추진을 아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시의원 입장에서는 설립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건의문도 저희들한테 날아오고, 상임위 활동을 하다보면 설립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조례특위에서 이번에 서울시립대학을 대학교로 바꾸었습니다. 종합대학이 된 것입니다. 이제 명실공히 되었는데 이것이 알맹이는 종합대학이 아니고 그냥 껍데기로만 종합대학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실지로 종합대학으로서의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어서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객관적인 사회의 여론은 의사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립대학에서 지금 의과대학을 설립을 안 해도 충분히 서울 시내에 또는 전국적으로 의사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학에서는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면 그런 관료주의적인 생각도 다 버려야 될텐데 종합대학이 되었으니까 하나 설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企劃室長 安斗順;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의과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저항을 받고 있고 또 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이 개설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종합대학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의과대학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막연한 욕심에서가 아니라, 저희도 수시로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도시관련대학으로서의 그 분야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 무엇보다도 시민생활에서 의료서비스라는 것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는 서울시립대학에서 의사를 배출해도, 첫째는 의사가 집무를 시작하려고 하면 금년도에 개설이 되어도 2006년이 되어야 처음으로 시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서울시 22개 보건소에 의사가 한명도 없습니다. 전부 간호사 수준의 사람들이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이것은 죽기 직전 아닌 극빈자 아니면 안 가는,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시에서도 엄청나게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이것 없애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실효를 거두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또 여섯 개의 시립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강남병원을 포함해서 여섯 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

기에 지방공사 강남병원을 포함해서 모든 병원에서 의사들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진 데는 아주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 개개인의 자질이 나빠서가 아니고 보수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 발전 기회, 자기 연구 기회가 없다, 왜 없느냐, 결국 시술만 하기 때문에 병원 의과대학에서 실시하는 연구, 실험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도 몇 년 지나면 저절로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자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람들은 자꾸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은 확충해도 역시 경쟁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립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설치해서 의사들을 배출해도, 아주 속된 말로 표현하면 기존 의사들의 밥그릇은 안 뺏고 서울시 보건소에 그리고 시립병원에 최소한 6년이면 6년, 10년이면 10년의 의무복무를 시키면 자체적인 시민봉사도 하고 서울시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하는 보건소하고 시립병원도 개선하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金熙健 委員;그러니까, 그 論理를 우리 常委에서만 말씀해 주지 마시고 그 關係되는 저희들 市議員 132명하고 教育部하고 關係部處에 그 내부적인 論理를 內容으로 만드셔서 가지고 다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나가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企劃室長 安斗順;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孫允準 委員; 이번 세미나에 의사결정과정을 만든다고 하는데..... 醫科大學의 設立妥當性을 놓고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醫科大學 나오는 사람이 또 꼭 그 서울시립병원에 간다는 보장이, 약속이 됩니까? 그것도 문제가.....

○企劃室長 安斗順; 그것은 入學할 당시에 條件을 달아 가지

고 그렇게 하면 施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施行하고 있는 市費77777學生도 그런 식으로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孫允準 委員; 그런 妥當性을 文書化 해 가지고 배부해 주십시오.

○企劃室長 安斗順;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熙健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報告內容 中에 보면 分期別로 한 번 정도씩 세미나라든가 討論會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서울시의 豫算으로 設立되어서 運營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의 어떤 중요한 특징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分期別에 한 번 정도가 아니고, 내용적으로 해서 좀 많이 개최해 주세요.

지금 각종 言論이나 媒體를 통한 우리 서울시립대 敎授님들의 研究發表 內容이 간혹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敎育界라고 하는 것이 지면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부분은 아마 충분히 서울시의회에서 議決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제가 建議 말씀 드리는데 저희들 本議會가 열리는 날짜만큼이나 그런 討論會가 열리지는 못하겠지만 좀 우리 委員들이 노출된 學問위에서 저희들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室長 安斗順;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今年에 6회를 하겠다고 豫算을 申請을 했는데 그것이 전면 削減되어 버려 가지고, 제가 다시 사정해 가지고 今年에

는 多回 하도록 했는데 저희 學校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豫算하고 상관없이 6회든지 10회든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저희 委員會에서 削減했어요?

○孫允準 委員; 室長님! 다시 한 번 제가 지금 工科大學이 8개학과가 있는데 綜合大學의 位相을 만들기 위해서 그 8개학과가 제대로 지금 施設問題 이런 것이 잘 조화가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金相復; 아까 사실은 金熙健 委員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綜合大學이 되긴 되었는데 저희 體制나 규모면에서는 아직 綜合大學의 골격을 전혀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總長님을 모시고 제가 市長님한테 한번 가서 시립대학의 歷史가 길긴 길지만 한번도 集中投資를 해 본 적이 없고 그저 每年 豫算, 今年에는 昨年보다 5% 올려줬다, 10% 올려줬다 하는 이 豫算만 가지고 事業을 하다 보니까 學校의 基本骨格을 갖추 기회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基本骨格을 갖추기 위해서 集中投資를 한 5개년만 해 주십사, 예를 들어서 우리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每年 한 60억원씩 投資해 갖고 5個年에 걸쳐서 한 300억원만 投資해 놓으면 완전히 새로운 學校로 新設學校못지 않게 여건이 좋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工科大學 校 8개 學科가 있습니다만 우선 계열별로 따져서도 참 부족한 學科數도 많고 學生數도 부족한데다가 實驗實習機資材 確保率이 教育部 基準에 비추어봐도 워낙 모자랍니다.

단지, 저희들이 조금 자위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昨年度에 착공을 한 工大 實驗棟이 建設이 되면 실험실 여건이 改善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서울시에서 集中投資를 5개년

동안만이라도 해 준다면 저희 學生資質이라든지, 또 제가 教授立場에서 이런 말씀 참 죄송합니다만 教授들의 資質뿐만 아니라 각오도 서 있습니다. 이 점에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孫允準 委員; 東大門 管轄인데요. 지금 申總長님 오셔 가지고 學校가 많이 좋아졌고 또 學生水準도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한테는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우리 文化教育委員會에라도 弘報할 수 있는 資料를 좀 주십시오.

○企劃室長 安斗順;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다음 다른 市立大學에 대한 質疑 계십니까? 없습니까? 결국 그 醫科大學問題는 金熙健 委員님이나 우리 孫允準 委員님, 그리고 다른 委員님들도 똑같습니다만 弘報活動이 이제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충적인 것은 되어 있지만 소위 分業化, 專門化가 施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報告油印物에 보게 되면 醫科大學設立推進委員會가 생겼을 때 그것이 細分化되어 가지고 企劃化 되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質問이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고 이상으로 서울시립 대학교에 대한 質疑와 答辯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 및 關係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연이어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午前會議를 이것으로 마치고 午後 2時에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26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委員長 權會榮;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  
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계속해서 業務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地方公  
務員敎育院長 나오셔서 業務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院長 李在浣; 公務員敎育院 副敎育院長입니다. 公務  
員敎育院長님이 空席中이어서 제가 대신 報告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敎育院은 존경하는 權會榮  
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께서 各別하신 지도와 勸導을 해 주  
셔서 작년 한 해 동안 大過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敎育訓練을 實施하는 過程에서 생기는 어려운 점이나 미처  
생각지 못한 事項에 대해서는 수시로 委員님들의 高見을 받  
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業務現  
況을 간략하게 報告말씀 드리겠습니다.

報告에 앞서 幹部紹介는 變動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主要業務計劃을 報告드리겠습니다.

.....  
(報告)

1992년도 공무원敎育院 主要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하게 敎育院 業務計劃을 報告말씀 드렸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公務員敎育院에 대한 금년도 業務計劃에 대해서 質  
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相復 委員; 業務報告를 소상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金  
相復 委員입니다. 저희들이 現場에 가보고 또 監査를 하고 또

저희들이 小委員會 및 우리 常任委에서 늘 거론됩니다만 우리 公務員敎育院에서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오늘 제가 質疑하고자 하는 것은 敎育院의 本質的인 問題와 그 역할로 하여금 實效를 얼마나 거둘 수 있는가 하는 問題를 質疑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敎育을 받아야 할 被敎育者는 서울시 산하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했을 때 敎育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公務員들이 별로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公務員敎育院에 가 가지고 자기가 배울 것을 더 배우고 정신도 수양하고 여러 가지의 利點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가 해야 되는데 敎育받기를 서로 원해야 되는데 마치 一部分的이고 枝葉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部分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시각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敎育을 받으러 가는 것은 마치 軍에 들어가는 것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逆으로 해석하면 公務員敎育院에 가서 그만한 利得이라든가 또 원래 目的이 所期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러한 마음가짐을 안 가졌을 것이 아니냐,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현실적인 問題에 있어서는 公務員敎育院이 제대로 敎育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問題를 提起를 해 보고 싶습니다.

附隨的으로 얘기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1988年度, 87年度 당시에 서울시 각 洞單位의 洞長들을 質的으로 向上시켜야 되겠다 해서 대기발령 형식으로 公務員敎育院에 가서 長期間, 제가 알기로는 3個月間 敎育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분들의 結果는 지켜봅시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7·8명 됩니다. 結果는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計劃되고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短期教育이다, 너무 짧다,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하는 問題도 대두됩니다. 그래서 제가 質疑하고 싶은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教育을 받기를 원할 수 있는 정도의 教育內容과 분위기를 敎育院에서 刷新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100명을 1년에 敎育시키기 보다는 50명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質的 向上을 높일 수 있는 方法도 새롭게 모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提示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서울시 傘下의 團體로 되어 있는 敎育院이 委託教育을 배제할 필요성도 있다, 우리 公務員들 敎育하는데 많은 시간과 施設을 할애하지 말고 서울시 傘下에 敎育을 하기 위한 公務員의 敎育에 완전 質的 向上을 위해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運營方法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問題를 提起하면서 이 分野에 대해서 혹시 改善策이라든가 대책이 있다면 答辯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一問一答式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答辯하시지요.

○副敎育院長 李在浣; 지금 金相復 委員님께서 좋은 指摘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敎育院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종전의 敎育과 현재의 敎育에 있어서는 조금 현재가 여러 가지 社會與件의 變動탓도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느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自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公務員이 그야말로 敎育院에 들어와서 단 얼마 동안 몇 주간이라도 敎育을 받으면 받기 전과 받은

후라는 것은 본인도 모르게 그야말로 자세가 달라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각별히 教育科目을 調整을 하고 또 教育에 임하는 여러 가지 與件을 改善해서 그야말로 公務員教育의 本産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세요.

○金相復 委員; 제가 質問했을 때는 그런 內容이 아니고 지금까지 쪽 했던 데이터를 보았을 때 長期教育이 좋으나, 短期教育이 좋으나, 長期教育이 좋은데 지금 現 制度와 여러 가지 어떤 사정, 豫算關係 때문에 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計算해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短期教育이 더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그리고 여기에서 附隨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公務員教育이라는 원래의 目的이라는 것은 精神教育이 제1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教育을 받은 분들이 公僕者로서의 本然의 任務를 다했을 때 그 職種에 임했을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公職者들이 일을 할 때 나는 職業으로써 하는 것하고 또 조금 틀린 관념인지는 모릅니다만 公職者로서 일하는 것하고 틀리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一般市民으로부터 公務員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가난할 가능성은 있을지라도 반대로 존경받는 公務員의 像을 敎育院에서 심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質問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작년도에 業務計劃에 대해서 소상히 質問을 하고 다 알기 때문에 아마 별로 質疑할 內容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業務計劃에 대한 質疑와 答辯을 終結

하겠습니다.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 또 委員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로써 第53回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文化教育委員會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事日程이 모두 끝났으므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4時 27分 散會)

---

○出席委員

權會榮 金相復 曹相彩 劉起鍾  
孫允準 金熙健 李鍾學 孫馥  
李汪烈 張精一 金仁雨 李喆鎬  
趙貞順 朴善童 李載震

○專門委員

鄭永國

○出席公務員

서울特別市教育廳

副教育監 朴炳墉

管理局長 정충희

社會教育體育局長 鄭鶴謨

서울市立大學校

總長 申弘

企劃室長 安斗順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教育院

副教育院長 李在浣